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7.6.29 (목)	담당자	Tammy Chung 323-936-3015

2017 ARI Project <가향민악 嘉香民樂> 공연

嘉香民樂...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음악



- ▶ 공연명 :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
가향민악 嘉香民樂
GA HYANG MIN AK (Scent-like Music for All)
- ▶ 일시 : 2017년 7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Gamin Ensemble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 다섯번째 무대로 가민양상블 (대표 가민)과 함께 <가향민악 嘉香民樂> (GA HYANG MIN AK: Scent-like Music for All)을 7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음악이라고 풀이될 수 있는 嘉香民樂(가향민악)은 현대사회에서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에게 전통음악을 통해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정화시키고자 준비된 음악회로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의미로 창제한 여민락의 의미를 현대에 맞게 재 해석한 공연이다.

嘉香民樂(가향민악)은 2012년부터 매년 남산국악당, 남산한옥마을, 운현궁 등 한국 전통음악 공연장을 비롯한 한옥에서 가민양상블의 전통음악 연주회 시리즈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LA한국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겨 소개될 예정이다.

대표 가민은 서울대학교 학사와 박사과정,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과정을 통하여 정재국 명인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에게 사사하였고,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음악가로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하여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 연주단원인 강효진(가야금)과 판소리 고법 전수자 심운정(장구)이 함께 출연하여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실내에서 연주하는 ‘민간풍류 중 뒷풍류’, 대표적인 한국민요 ‘아리랑’, 산조를 합주형태로 바꾸어 무대예술화 한 ‘산조합주’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2017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클래식, 무용, 국악, 인형극, 재즈, 탈춤, 궁중다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16회 선보일 예정이다.*

"가향민악 嘉香民樂" (프로그램 / 출연진)

1. 민간풍류 중 뒷풍류 : 계면가락도드리-양청도드리-우조가락도드리-굿거리

풍류란 8-15 개의 곡이 연이어 짜여있는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연주하는 것으로, 풍류라는 이름은 옛날 각 지방의 풍류객들이 영산회상을 연주한 곳인 풍류방에서 비롯되었다. 조용하고 우아하며 상류사회에서 즐겨왔다. 풍류는 현악기를 중심으로 하여 실내에서 연주하는 줄풍류와 관악기를 중심으로 하여 실외에서 연주하는 대풍류로 나뉜다.

2. 아리랑 : 긴아리랑- 본조아리랑- 아리랑-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상주아리랑- 밀양아리랑

아리랑은 대표적인 한국민요이다. 아리랑은 ‘아리랑’ 또는 ‘아라리’ 등이 후렴에 들어있는 민요의 총칭으로,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리듬과 선율의 사설이 발달되어 전승되고 있다. 아리랑의 노랫말에는 우리의 역사와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희로애락과 영원이 담겨 있다. 2012년 12월 6일, 파리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3. 산조합주

산조합주는 독주곡 양식인 산조를 합주형태로 바꾸어 무대예술화 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산조의 각 악기별, 유파별 특징을 살려 짜여진 합주 선율을 각 악기가 음색을 강조하며 자유롭게 풀었다 죄었다 하는 민속 음악의 세련미를 느낄 수 있는 합주곡이다

※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주요출연진 약력>

가민 嘉玟

중요무형문화재 제 46 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박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부수석 역임

서울시향, KBS 오케스트라, 산타크루즈 심포니, 프라임 필하모닉, 국립국악원, KBS 국악관현악단, 경기도립국악단 등과 협연

유럽, 미국, 아시아 등 10 여개 국가에서 초청 연주

파리, 생황, 태평소 연주자 및 다원예술가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 (199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1998)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200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박사과정 졸업 (2015)

심운정

판소리 고법 전수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문화관광부 Artist-in-Residency New York 에 선정된 젊은 연주자

강효진

국립국악원 정악단 연주단원

가야금양상블 사계 연주단원 역임

이재숙, 김일륜 교수로부터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사사

국립국악고등학교, 목원대학교 강사 역임

아시아 쉐나 교류회 회원, 예악연구회 회원

수원대학교 출강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석사

/끝/